# 한구절 묵상

2026. 11/12

평촌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순교회
Sae soon Presbyterian Church

## 한 구절 묵상은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성경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3년 1독 커리큘럼으로 매일 성경을 1장씩 읽어가며, 그 중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❶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에 따라 매일 1장 읽기에 도전해 보세요.
3년과정으로 3년에 성경 1독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❷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을 묵상노트를 활용하여 개인 묵상해 보세요.

❸ 새벽기도회 말씀을 통해 한 구절 묵상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더욱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❹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가정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보세요.

❺ 다락방 모임과 청년부 순모임에서 한 구절 묵상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❻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구절 묵상의 개인 묵상과 은혜를 나눠보세요.



## 한 구절 묵상 3년과정 커리큘럼

| | 1년 | 2년 | 3년 |
|---|---|---|---|
| 오경 | 창세기<br>출애굽기 | 레위기 | 민수기<br>신명기 |
| 역사서 | 사사기 | 여호수아 / 룻기<br>사무엘상하<br>열왕기상하 | 역대상하<br>에스라<br>느헤미야<br>에스더 |
| 시가서 | 욥기 / 시편1 | 잠언 / 시편2 | 전도서<br>아가 / 시편3 |
| 선지서 | 이사야<br>호세아<br>요엘 / 아모스<br>오바댜 | 예레미야<br>예레미야애가<br>요나 / 미가 / 나훔<br>하박국 / 스바냐 | 에스겔<br>다니엘<br>학개 / 스가랴<br>말라기 |
| 복음서<br>사도행전 | 마태복음<br>마가복음 | 누가복음<br>사도행전 | 요한복음 |
| 바울서신 | 고린도전후서 | 갈라디아서<br>에베소서<br>빌립보서<br>골로새서 | 로마서<br>데살로니가전후서<br>디모데전후서<br>디도서 / 빌레몬서 |
| 일반서신 | 히브리서<br>야고보서<br>베드로전후서 | 요한1,2,3서<br>유다서 | 요한계시록 |

❶ 3년간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❷ 커리큘럼은 매일 성경 1장 분량씩 진행됩니다.
*묵상이 어려운 본문(인구조사, 족보, 성막제작, 열방심판 등)은 묶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❸ 3년 커리큘럼에 맞춰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이 집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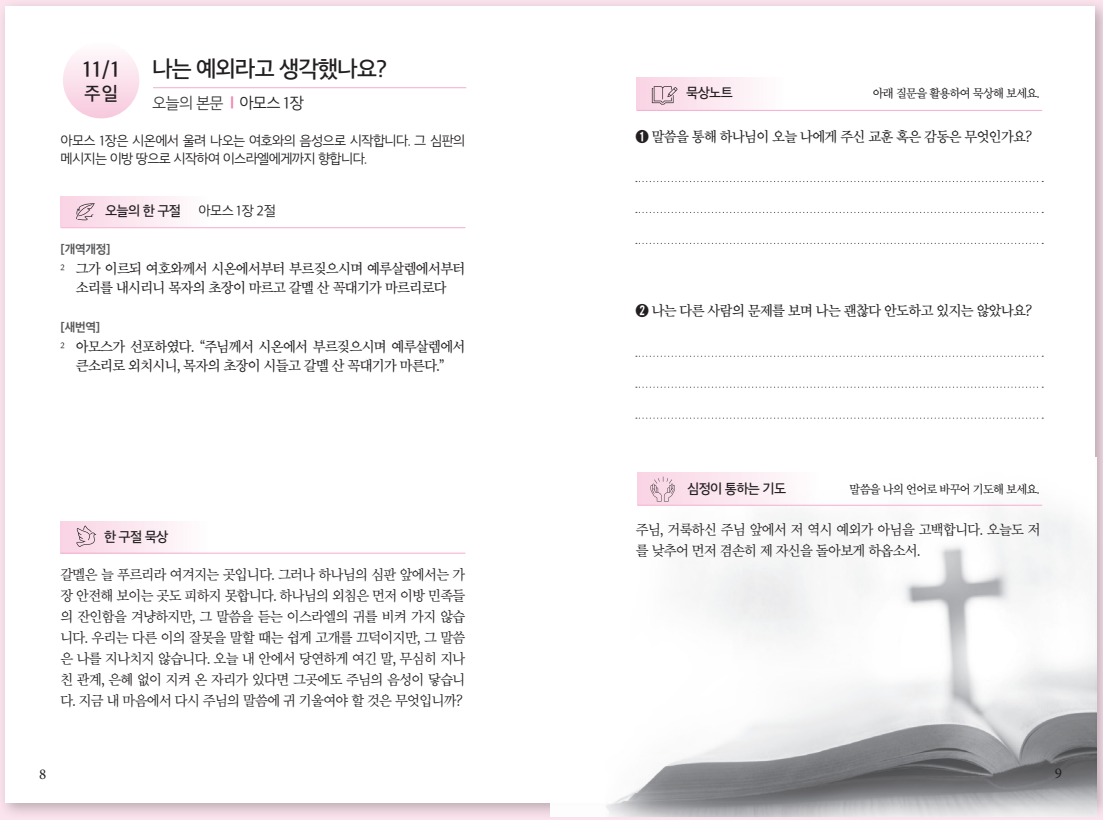
❹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은 격월로 마지막 주 주일에 배부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핸드북 PDF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 구절 묵상」 이렇게 묵상하세요.

**❶ 기도**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의 은혜를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❷ 본문읽기**
묵상구절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❸ 묵상하기**
본문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11/1 주일

나는 예외라고 생각했나요?

오늘의 본문 |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은 시온에서 울려 나오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방 땅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에게까지 향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1장 2절

[개역개정]
2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새번역]
2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른다."

한 구절 묵상

갈멜은 늘 푸르리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외침은 먼저 이방 민족들의 잔인함을 겨냥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귀를 비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잘못을 말할 때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씀은 나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당연하게 여긴 말, 무심히 지나친 관계, 은혜 없이 지켜 온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도 주님의 음성이 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8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며 나는 괜찮다 안도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저 역시 예외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를 낮추어 먼저 겸손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9

**❹ 묵상노트**
질문에 따라 묵상한 후
적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❺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보십시오.
제공되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도 좋습니다.

**❻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오늘의 본문(1장 분량)을
읽고 묵상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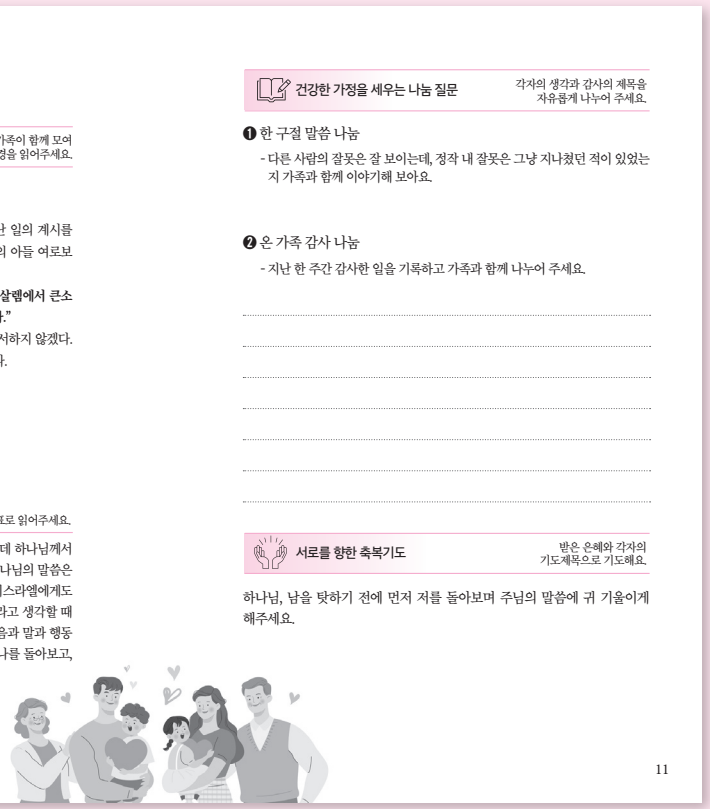
# 「한 구절 가정예배」 소개

### ❶ 우리가족 말씀 나눔

온 가족이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한 한 구절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요시아, 느헤미야, 에스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회중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는 성경 읽기는 그 자체로 큰 힘이 있습니다.

### 묵상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성경의 깊은 메시지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나눔 질문을 돕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나눔 질문이 나오게 된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1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 아모스 1:1-3, 새번역 ]

1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웃시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이 년 전이다.

2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른다."**

3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묵상]** —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갈멜 산은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크게 외치시자, 그 푸른 산꼭대기마저 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나라들의 잘못을 먼저 꾸짖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향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켜 가지 않고,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0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정작 내 잘못은 그냥 지나쳤던 적이 있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저를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11

### ❷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을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나눔을 통해 묵상이 풍부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 ❸ 온 가족 감사 나눔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감사를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됩니다.

### ❹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대화를 통해 생긴 기도의 제목과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매주 대표를 정해 기도하기, 가족이 돌아가며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11/1
주일

# 나는 예외라고 생각했나요?

오늘의 본문 |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은 시온에서 울려 나오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방 땅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에게까지 향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1장 2절

**[개역개정]**

2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새번역]**

2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른다."

## 한 구절 묵상

갈멜은 늘 푸르리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외침은 먼저 이방 민족들의 잔인함을 겨냥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귀를 비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잘못을 말할 때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씀은 나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당연하게 여긴 말, 무심히 지나친 관계, 은혜 없이 지켜 온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도 주님의 음성이 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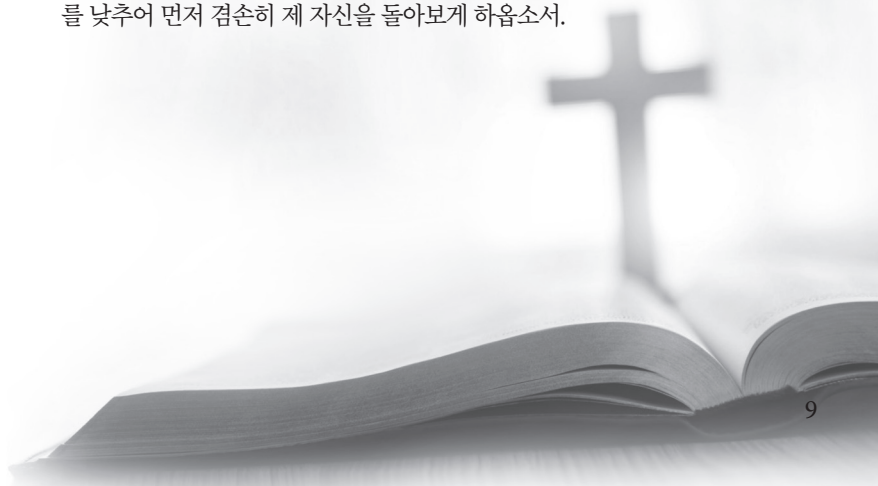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며 나는 괜찮다 안도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저 역시 예외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를 낮추어 먼저 겸손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11/1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 아모스 1:1-3, 새번역 ]

1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웃시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
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이 년 전이다.
2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소**
**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른다."**
3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갈멜 산은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크게 외치시자, 그 푸른 산꼭대기마저 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나라들의 잘못을 먼저 꾸짖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향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켜 가지 않고,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정작 내 잘못은 그냥 지나쳤던 적이 있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저를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11/2
월

# 신 한 켤레 값

오늘의 본문 | 아모스 2장

모압과 유다를 향한 심판 뒤에, 가장 길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정작 가난한 이웃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2장 6절

**[개역개정]**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새번역]**

6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 한 구절 묵상

'신 한 켤레'는 사람을 거래하기에 너무도 하찮은 값입니다. 그들은 빚과 편의와 이익의 계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을 물건처럼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 아픈 것은 이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 내셨는데, 그들은 다시 누군가를 값으로 환산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값을 치러 얻은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나는 계산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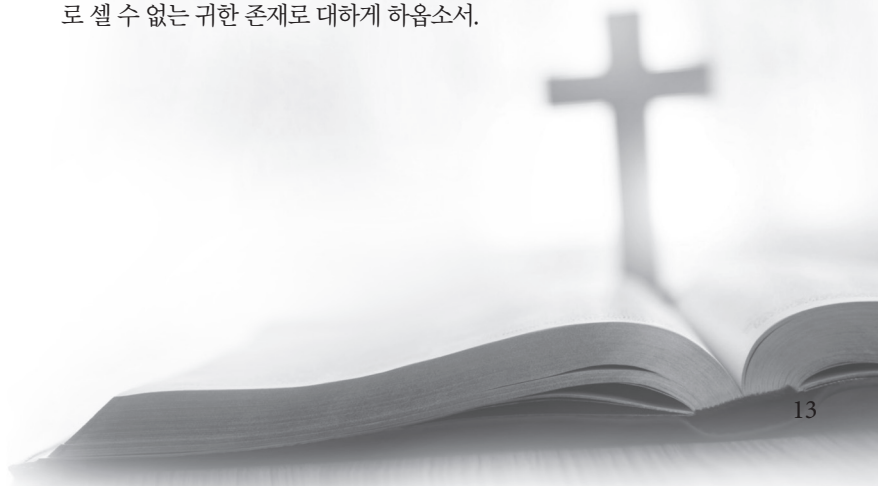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편의나 유익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의 차가운 저울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이들을 값으로 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대하게 하옵소서.



11/3
화

# 귀환의 기회

오늘의 본문 | 아모스 3장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미리 선포하신 심판 메시지와 함께, 사치와 죄악으로 물든 사마리아의 파멸을 경고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3장 6-7절

**[개역개정]**

6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새번역]**

6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7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곧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심판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귀환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앞에서 돌이킨 인생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동일한 기회일지라도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예수님을 등졌지만, 후회했던 유다는 파멸했고 회개했던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귀환의 기회 앞에서 돌이킴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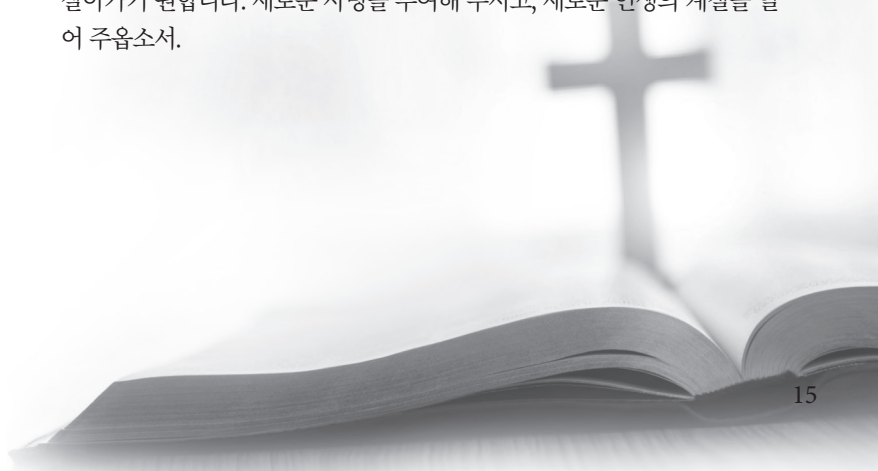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는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돌이키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회개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후회가 아닌 주를 향한 돌이킴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열어 주옵소서.



11/4
수

# 결핍마저 깨우지 못할 때

오늘의 본문 | 아모스 4장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형식적 예배를 책망하시며, 거듭된 징계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최종 심판을 선포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4장 6절

**[개역개정]**

6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번역]**

6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닛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 한 구절 묵상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풍요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신 것은 풍요가 건넨 독배였습니다. 부요함에 취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궁핍과 곤고함을 마주하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풍요도 빈곤도 그들의 영혼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채울 무언가입니까, 나를 깨울 은혜입니까?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신앙의 관심이 삶의 채움에 있는지, 영혼의 갈망에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세상의 물질과 삶의 필요로 채우는 것이 아닌,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11/5
목

#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너머

오늘의 본문 | 아모스 5장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 예배와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정의와 공의가 삶 가운데 구현되는 참된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5장 15절

**[개역개정]**

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새번역]**

15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 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 한 구절 묵상

신앙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신 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삶의 질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끝에는 뜻밖에도 '혹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돌이킴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는 것, 그 '혹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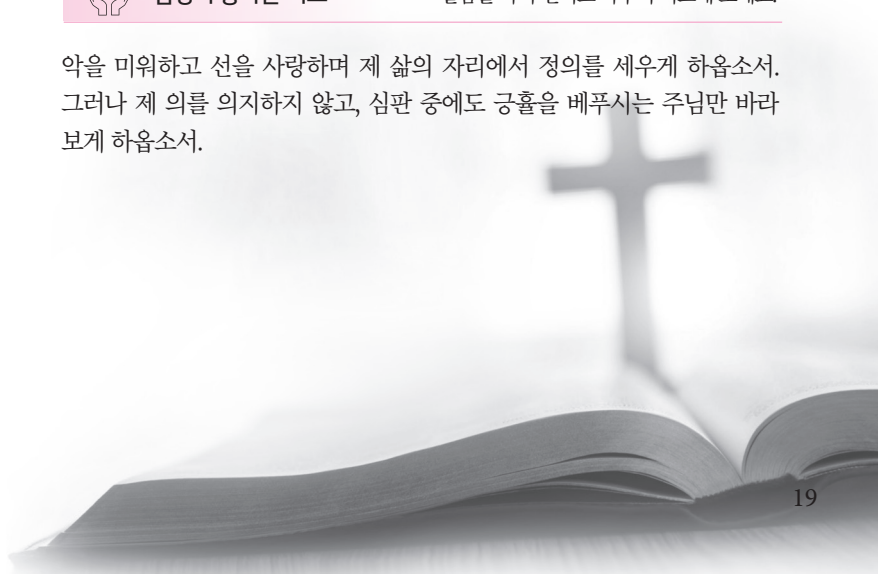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가 여전히 묵인하고 있는 불의는 무엇이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제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의를 의지하지 않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11/6
금

# 풍요 속에 찾아온 위기

오늘의 본문 | 아모스 6장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사치와 안일함이 드러나고, 위기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는 교만에 심판이 선언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6장 6-7절

**[개역개정]**

6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7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새번역]**

6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7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 한 구절 묵상

요셉의 환난 곧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도 지도자들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포도주와 귀한 기름의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요 속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인지하지 못했던 자들은 가장 먼저 사로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풍요와 평안 곁에, 아직도 살피지 못한 누군가의 아픔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개인의 상황이나 만족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개인의 평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위기에 반응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11/7
토

# 신앙의 기울기를 측정하라

오늘의 본문 | 아모스 7장

메뚜기와 불 재앙은 아모스의 중보로 돌이켜지지만, 다림줄 환상 앞에서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7장 8절

**[개역개정]**

8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새번역]**

8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 한 구절 묵상

다림줄은 벽의 수직 상태를 가늠하고, 기울기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눈에 멀쩡해 보이는 담도 다림줄 앞에서는 기울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번영하던 이스라엘 앞에 다림줄을 들고 신앙의 기울기를 측정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 바로 서 있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울어진 담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겉으로 볼 때 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기울어진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말씀의 다림줄 앞에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울어진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기울어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저의 기울어진 마음을 점검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8
주일

#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

오늘의 본문 | 아모스 8장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끝이 선언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예고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8장 11절

**[개역개정]**

11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새번역]**

11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 한 구절 묵상

아모스는 다가올 기근의 날을 선포합니다. 밥이 없어 굶는 것도,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사방으로 찾아다니지만 결코 그 기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체적 굶주림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말씀의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큰 굶주림은 없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결핍을 가득 채우시는 말씀의 풍요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요즘 나에게 어떤 영적 결핍이 있나요?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씀이 들리는 오늘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1/8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 아모스 8:11-13, 새번역 ]

11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12 그 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13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아모스는 아주 특별한 굶주림의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밥이 없어서도, 물이 없어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생기는 굶주림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지만 끝내 찾지 못합니다. 몸이 배고프면 금방 알아차리지만, 마음이 말씀에 굶주린 것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집에 있고 언제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마음을 든든히 채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몸이 배고플 때와 마음이 허전할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가족이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족에게 주세요.

11/9
월

# 하나님 되심

오늘의 본문 | 아모스 9장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 왕조의 위상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아모스 9장 11절

**[개역개정]**

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새번역]**

11 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미 무너져 다시는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자리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 초라함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회복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 초라함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해 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초라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11/10
화

# 정답이 아닌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의 본문 | 야고보서 1장

야고보는 시험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나아가 참된 신앙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

**[개역개정]**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새번역]**

5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 한 구절 묵상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소수자로 박해와 소외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에게 정답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가장 쉬운 길은 해답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스스로 풀어갈 지혜를 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해답지라는 쉬운 선택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정답이 아닌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혜가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 11/11 수 올바른 삶의 방향

오늘의 본문 | 야고보서 2장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야고보서 2장 17절

**[개역개정]**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새번역]**

17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 한 구절 묵상

흔히 이 구절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근거로 쓰이지만, 야고보의 가르침은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는 삶의 방향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말씀으로 믿음을 점검해야 하지만, 그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말로만 위로하고 지나쳤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실제로 도울 수 있을지 적어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11/12
목

# 같은 입, 다른 말

오늘의 본문 | 야고보서 3장

작은 혀가 큰 배와 숲을 움직이듯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 줍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야고보서 3장 9-10절

**[개역개정]**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새번역]**

9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10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한 구절 묵상

아침에는 찬양을 부르고, 오후에는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입인데도 말은 너무 다른 물결로 흘러갑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모순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마음의 방향을 비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지로 말버릇을 고치라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우리 혀까지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통치입니다. 오늘 이 모순된 입을 스스로 고치려 하기보다 그 다스림 앞에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찬송과 삶이 마침내 한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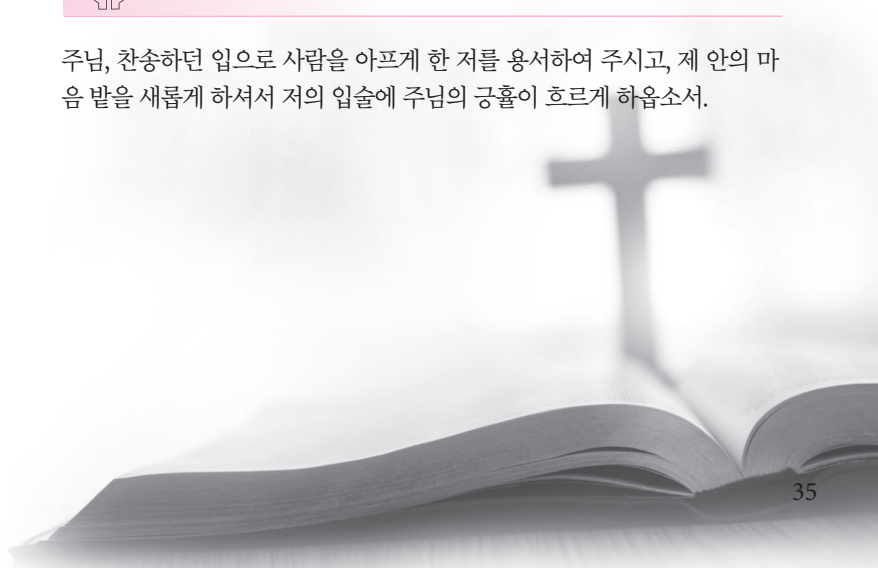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 입에서 반복되는 날카로운 말들은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에서 나오는 것 같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찬송하던 입으로 사람을 아프게 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안의 마음 밭을 새롭게 하셔서 저의 입술에 주님의 긍휼이 흐르게 하옵소서.



11/13
금

# 선악과를 먹은 존재

오늘의 본문 | 야고보서 4장

다툼과 판단, 자만의 뿌리는 정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야고보서 4장 12절

**[개역개정]**

12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새번역]**

12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 한 구절 묵상

야고보의 물음은 우리에게 창세기 속 선악과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뻗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려는 욕망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는 욕망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을 심판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하며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호 심판의 공동체가 아닌 사랑과 평화, 존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과 상황을 쉽게 판단(정죄)하게 되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1/14
토

# 가로챈 것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 야고보서 5장

불의한 부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야고보서 5장 4절

**[개역개정]**

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새번역]**

4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 한 구절 묵상

우리는 종종 모르는 척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작은 의견 하나쯤 묵살해도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정당한 요구인 줄은 알지만 못 들은 척 지나가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 부조리는 어디에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기로 한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가로챈 것은 없는지 물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 성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몫이었던 말과 인정과 자리를 내가 조용히 가로채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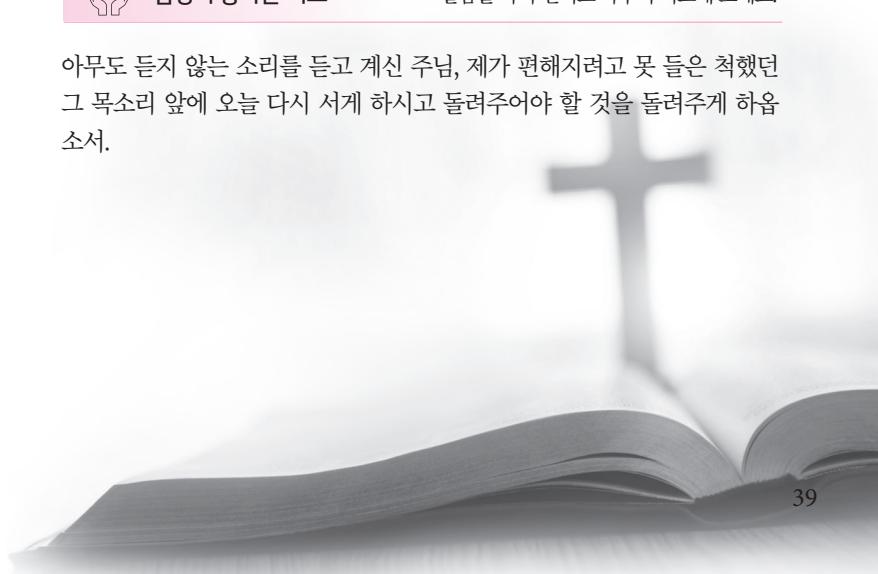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누군가의 침묵으로 손해를 입어본 경험 또는 반대로 내가 침묵했던 경험이 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를 듣고 계신 주님, 제가 편해지려고 못 들은 척했던 그 목소리 앞에 오늘 다시 서게 하시고 돌려주어야 할 것을 돌려주게 하옵소서.



11/15
주일

# 조건부 신앙

오늘의 본문 | 욥기 1장

사탄은 욥의 신앙이 축복이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결과 욥의 삶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장 9절

**[개역개정]**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새번역]**

9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 한 구절 묵상

사탄의 논리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인간의 신앙은 결국 조건 위에 세워진 거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서 그 까닭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재산과 자녀, 건강처럼 신앙심의 이유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까닭이 사라진 자리에서 욥은 눈물로 고함을 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조건을 따라가면 조건이 흔들릴 때 신앙도 함께 흔들립니다. 삶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욥은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신앙이 흔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흔들리는 조건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15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 욥기 1:8-11, 새번역 ]

8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 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9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11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거두어 가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욥은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모두 잃었지만,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그 믿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 가길 소망합니다.

##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해 주세요.

11/16
월

#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의 본문 | 욥기 2장

욥의 아내는 욥의 처지를 비아냥대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할 말을 잃은 채로 곁에 앉아 있습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장 10절

**[개역개정]**

10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새번역]**

10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 한 구절 묵상

성경 속 욥의 고난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는 그의 고백은 인생에 화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욥의 삶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대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기는 말합니다. 고난을 마주하고 통과해 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고 말입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난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11/17
화

# 아픔에 잠식될 때

오늘의 본문 | 욥기 3장

침묵을 깨고 입을 연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장 26절

**[개역개정]**

26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새번역]**

26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 한 구절 묵상

3장은 아픔에 잠식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절규합니다. 아픔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픔은 후폭풍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사라집니다. 몸의 감각도 둔해지다가 끝내 부드러웠던 마음마저 굳어집니다. 평온과 안일, 안식은 옛말이고 남은 것은 불안뿐입니다. 욥기는 인간이 아픔을 겪고 무너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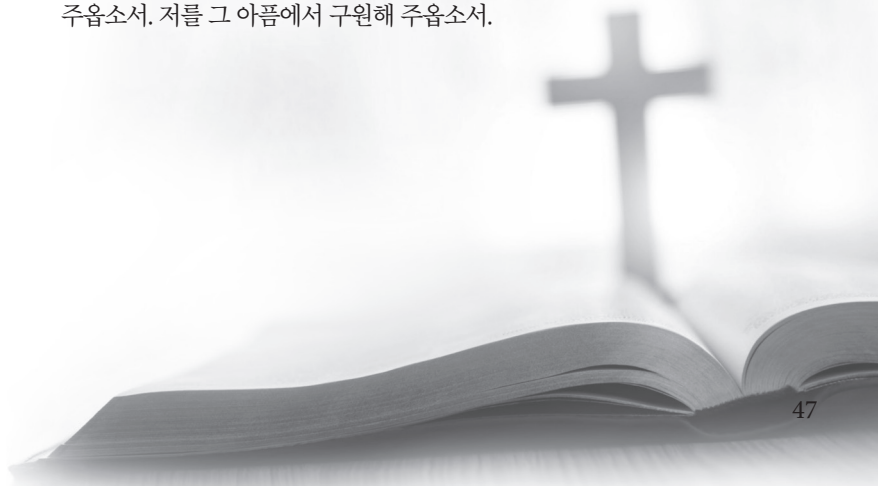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 인생에도 아픔에 잠식된 날들이 있었나요?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 버텨 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아픔에 잠식되어 눈물이 흐르는 날이 생긴다면 그때에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저를 그 아픔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11/18
수

#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본문 | 욥기 4-5장

친구 엘리바스가 처음 입을 열어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논리로 욥의 상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4장 7-8절

**[개역개정]**

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새번역]**

7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8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 한 구절 묵상

엘리바스는 욥과 함께 울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의 절규에는 참다 못해 입을 엽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만 떼어 놓고 보면 틀린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틀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재 위에 앉은 친구 앞에서, 그 말은 옳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슬픔은 받아들여 주더라도 아닌 것은 반드시 고쳐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 욥기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그 말을 들은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옳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 옆에 있어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하옵소서.

11/19
목

#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고

오늘의 본문 | 욥기 6장

욥은 친구들을 마른 시내에 비유하며 실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근거 없는 책망 대신 진실한 말을 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살펴 달라고 청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6장 25절

**[개역개정]**

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새번역]**

25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 한 구절 묵상

욥은 친구들을 마른 시내에 비유합니다. 갈증 난 이가 물을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뜨거운 계절에 금방 메말라버리는 시내 말입니다. 고난당한 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삶을 재단하는 말보다, 목마를 때 한 잔의 물처럼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 이르면, 사랑은 도착하기 전에 판단이 먼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꼭 답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 주는 시간이 마른 시내에 물을 다시 흐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오늘 내 곁에 설명보다 동행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아픈 이 앞에서 성급한 답을 내놓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는 말보다 먼저 사랑의 언어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 11/20 금 정돈되지 않은 기도라도

오늘의 본문 | 욥기 7장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숨기지 않은 채 하나님께 말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7장 7절

**[개역개정]**

7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새번역]**

7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자신의 생명을 바람이라 부릅니다. 붙잡을 수 없고, 스쳐 지나가며, 손에 남는 것이 없는 듯한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탄식을 허공에 대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옵소서." 욥은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부족을 고백하는 문장이 아니라, 고통이 얼마나 깊이 현재를 덮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를 지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돈된 믿음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이 겨우 꺼낸 숨 같은 말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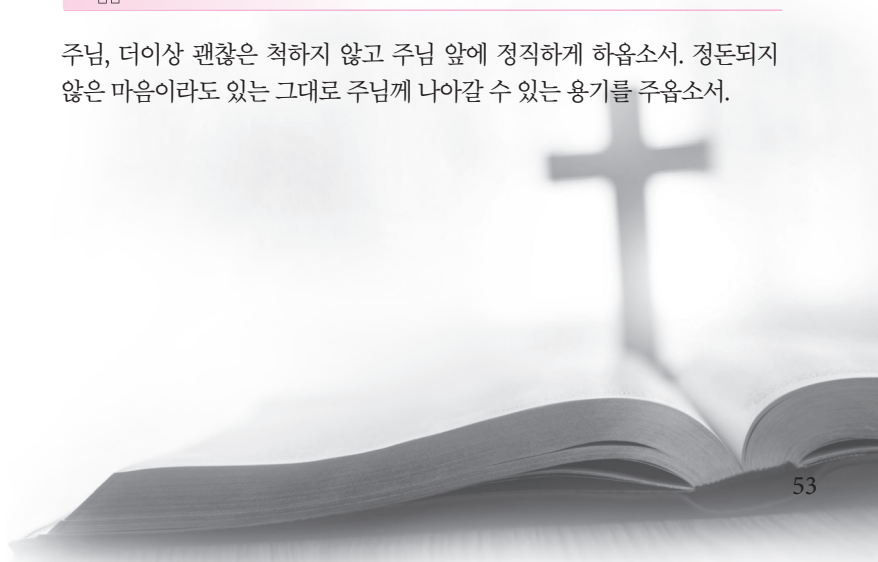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는 힘든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기보다 억지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더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라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11/21
토

# 주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오늘의 본문 | 욥기 8-9장

욥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그분을 알아볼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토로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9장 10-11절

**[개역개정]**

10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11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새번역]**

10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11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크심 앞에서 욥은 더욱 막막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아무리 불러도 닿지 않는 듯 느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탄식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 사정을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조차 모르겠던 날 말입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까이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 꺼내지 못한 탄식까지 아시고, 아버지 앞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그러니 오늘 기도가 잘되지 않아도,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합시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던 때는 언제였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날에도 저의 탄식과 간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붙드시는 손을 신뢰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11/22
주일

#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오늘의 본문 | 욥기 10장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탄식의 고백을 드립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0장 1절

**[개역개정]**

1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새번역]**

1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과 탄식을 있는 그대로 토로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늘 정돈된 찬양과 감사만을 드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원망이 차오를 때면 이를 감추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탄식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깊은 기도가 됩니다. 사랑도 원망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제된 고백의 내용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실함을 바라보십니다. 포장된 거룩함보다 정직한 슬픔까지 내어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게 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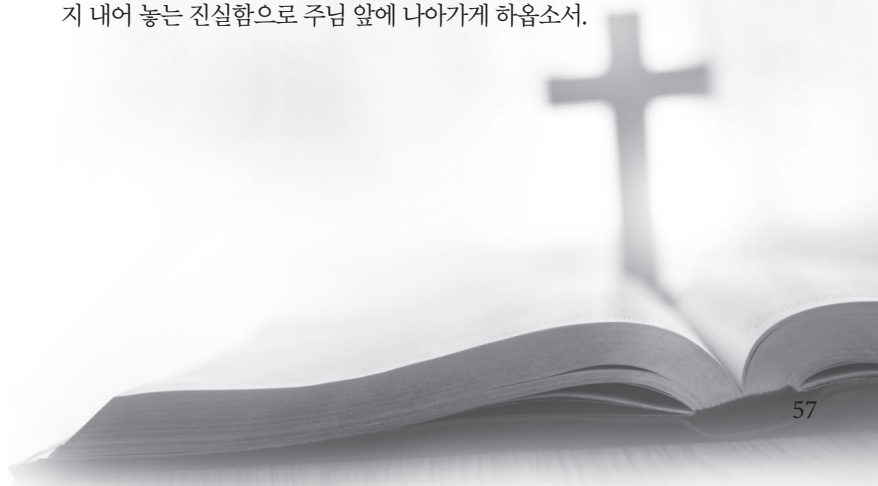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는 하나님께 '정돈된 모습'만 보여드리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어려운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장된 거룩함이 아닌 정직한 슬픔까지 내어 놓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11/22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 욥기 10:1-3, 새번역 ]

1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2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3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큰 고통 속에 있던 욥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쁘고 바른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면 감추거나, 아예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탄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잘 다듬어진 말보다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마음이 있었나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꾸미지 않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세요.

# 11/23 월 아는 것과 안다고 여기는 것 사이

오늘의 본문 | 욥기 11장

욥의 친구 소발은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하는 욥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단정하며, 욥에게 회개를 권면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1장 11절

**[개역개정]**

11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새번역]**

11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 한 구절 묵상

소발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라 말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자신도 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까지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견디기보다 서둘러 원인을 찾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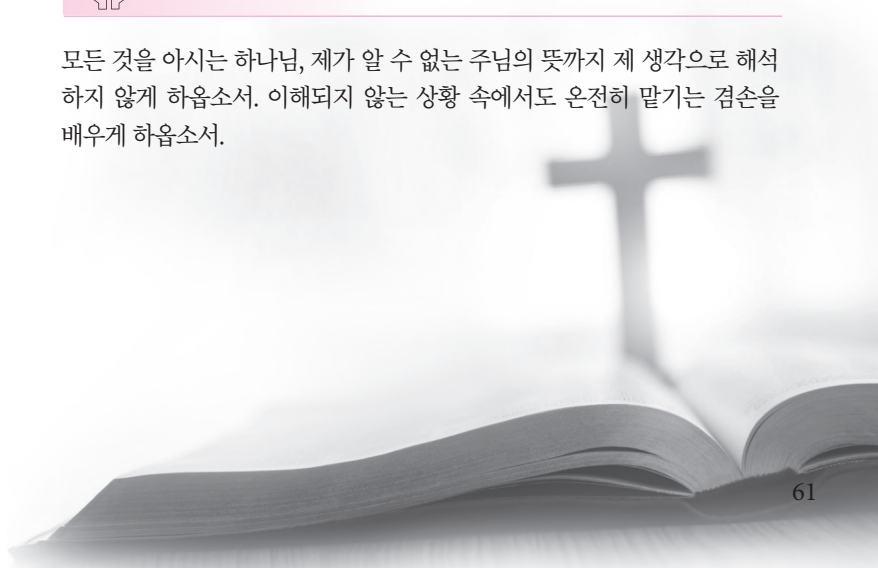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기보다, 서둘러 원인을 해석하고 결론 내리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뜻까지 제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맡기는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 11/24 화 통제할 수 없음이 믿음의 자리가 될 때

오늘의 본문 | 욥기 12장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지혜와 권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세 친구들의 충고를 반박하며 그들의 오만함을 비판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2장 13-14절

**[개역개정]**

13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4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새번역]**

13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14 하나님이 헐어 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 줄 자가 없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자신이 겪는 무너짐 앞에서 오히려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흔들릴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다시 세울 방법을 찾아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허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여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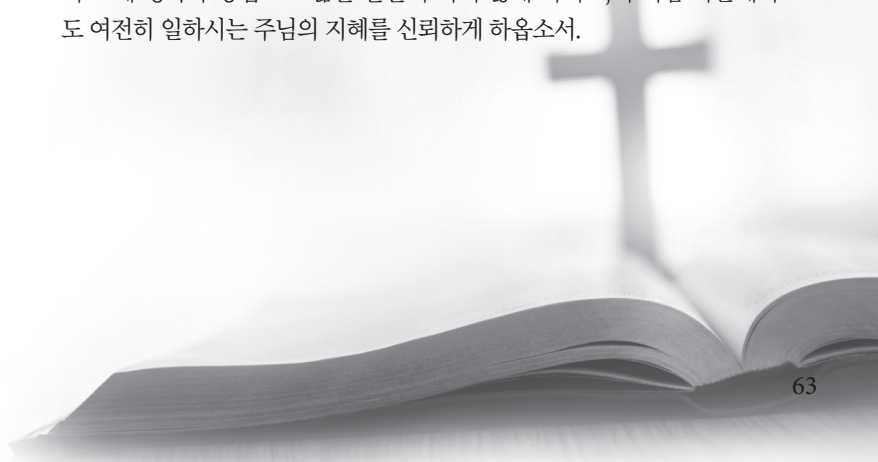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가 이해하고 통제하려 애쓰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지혜와 권능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제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붙들려 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11/25
수

# 가장 견디기 힘든 침묵

오늘의 본문 | 욥기 13장

욥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3장 24절

**[개역개정]**

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새번역]**

24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 한 구절 묵상

욥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등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따져 묻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 묻고 끝까지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나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응답이 없어 막막할 때에도 주님을 향해 묻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11/26
목

# 고난을 견디는 힘

오늘의 본문 | 욥기 14장

욥은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탄식하면서도, 다시 부르실 날을 향한 소망을 붙듭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4장 14-15절

**[개역개정]**

14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새번역]**

14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5 그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 한 구절 묵상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날이 길어지면 더 이상 기다림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날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군인이 자신의 복무 기간 동안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의무가 끝나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대답할 때에 모든 고난에서 풀려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의 날을 견뎌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냅시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 11/27 금 정죄의 소리가 들려올 때

오늘의 본문 | 욥기 15장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교만이라 몰아붙이며, 사람은 누구도 깨끗할 수 없다고 다시 정죄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5장 14절

**[개역개정]**

14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새번역]**

14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 한 구절 묵상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정죄는 욥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정죄의 소리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의 근거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정죄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의 믿음을 흔드는 정죄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불의한 저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의로우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11/28
토

# 모순을 가진 기도라도

오늘의 본문 | 욥기 16장

16장에서 욥은 자신을 교만하고 불경건한 죄인처럼 몰아세우는 엘리바스에 대해 반박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6장 19절

**[개역개정]**

19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새번역]**

19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엘리바스의 비난에 반박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욥은 동시에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다"며 자신을 변호해 주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원망과 신뢰, 이 둘이 어떻게 한 사람의 고백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불완전한 인간의 가장 정직한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다듬어진 말만 담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의 두 마음까지도 그대로 안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욥을 통해 하나님은 정돈되지 않은 기도조차 외면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모순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받아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욥의 고백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묵상해보고, 적어보세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완전하지 않은 기도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 11/29 주일 내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의 본문 | 욥기 17장

욥은 자신의 누울 자리가 오직 스올 뿐이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7장 3절

**[개역개정]**

3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새번역]**

3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보증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이라는 뜻으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여전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대상에게 동시에 나의 편이 되어달라 청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 모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지금 내게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것만 같은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11/29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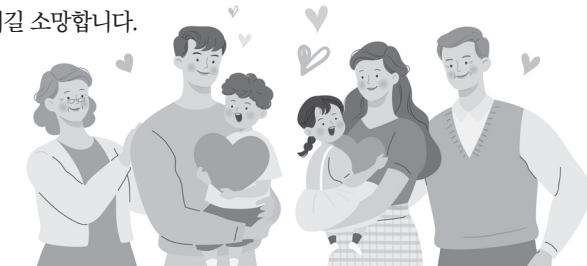
[ 욥기 17:1-3, 새번역 ]

1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2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3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기운도 없고 사람들의 조롱까지 받던 욥은 하나님께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보증이란 '이 사람은 틀림없다'고 책임지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 바로 그 부탁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나를 지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수록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억울하거나 속상했던 순간,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었나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졌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고 억울한 순간에도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세요.

11/30
월

# 아무리 옳은 도구라도

오늘의 본문 | 욥기 18장

빌닷은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을 찌르는 도구가 되었고, 잘못된 적용의 예를 보여줍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8장 5절

**[개역개정]**

5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새번역]**

5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 한 구절 묵상

욥의 응답에 빌닷의 어조는 더욱 격해집니다. 그는 '악인은 망할 것이다'는 정답으로 욥을 압박합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은 욥을 찌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살피지 않은 무자비한 적용은 결국 상처를 낳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정답을 말하더라도, 상대의 신앙과 마음을 먼저 살필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구합시다. 그 넓은 시야로, 정답보다 먼저 사랑으로 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옳은 말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몰아세웠던 순간이 있다면 떠올려보고, 그때 상대의 마음이 어땠을지 헤아려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답보다 먼저 사랑으로 품는 넓은 시야를 주옵소서.

12/1
화

# 진정한 수용

오늘의 본문 | 욥기 19장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절규하던 욥은 자기 말이 바위에 새겨지기를 바라며, 끝내 자신을 변호해 줄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19장 22-23절

**[개역개정]**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새번역]**

22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23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 한 구절 묵상

욥의 친구들도 나름대로 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욥의 말과 행동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나를 납득시켜 달라고 되물었을지 모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납득시켜야 하는 이 상황을 박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기록됐으면 좋겠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언젠가, 누군가는 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깨지 않고서는 타인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내 생각의 기준이 타인을 철저한 고독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 생각의 기준을 깨고 누군가를 받아들여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기준을 넘어 다른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12/2
수

# 반대를 위한 반대

오늘의 본문 | 욥기 20장

소발이 두 번째로 입을 열어,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며 삼킨 재물은 도로 토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0장 3-4절

**[개역개정]**

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4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새번역]**

3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4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 한 구절 묵상

소발의 말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의 말꼬리를 붙잡고 점점 더 진지해지는 싸움입니다. 대화를 이어 갈수록 확인되는 것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가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욕감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고 더 논리적인 말을, 더 그럴듯한 동기를 끌어옵니다. 소발이 자신의 대답이 '깨닫게 하는 영'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대의명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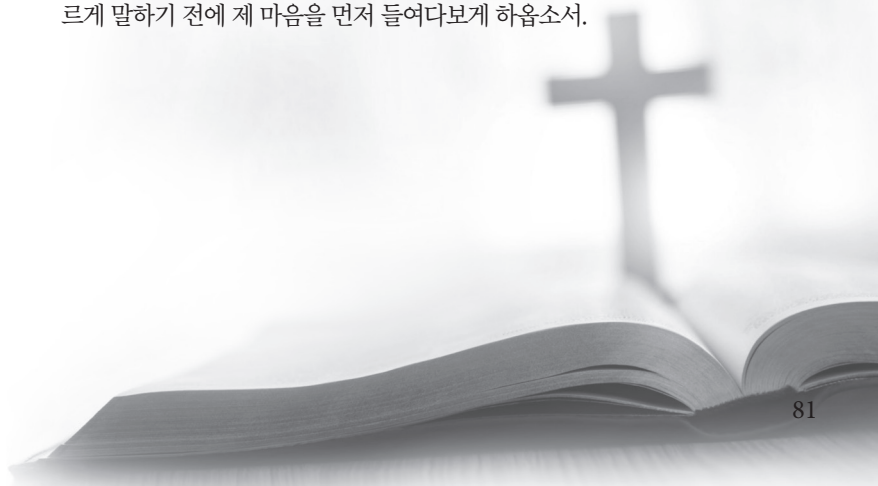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꺼낸 말이 나중에 후회로 남은 적이 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상한 마음에서 나온 말에 주님의 이름을 입히지 않게 하옵소서. 섣부르게 말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12/3
목

#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본문 | 욥기 21장

욥은 악인이 오히려 장수하고 번영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친구들의 위로가 빈 말일 뿐이라고 한탄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1장 34절

**[개역개정]**

34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새번역]**

34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두고 빈말,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먼 길을 와서 함께 울었고 이레 동안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진심이라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진심은 말하는 사람의 것일 뿐 그 말이 어떻게 가 닿는지는 듣는 사람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위로는 내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들었느냐로 완성됩니다. 진심을 다했다는 말로 만족하기 전에 나의 진심이 타인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았는지, 우리는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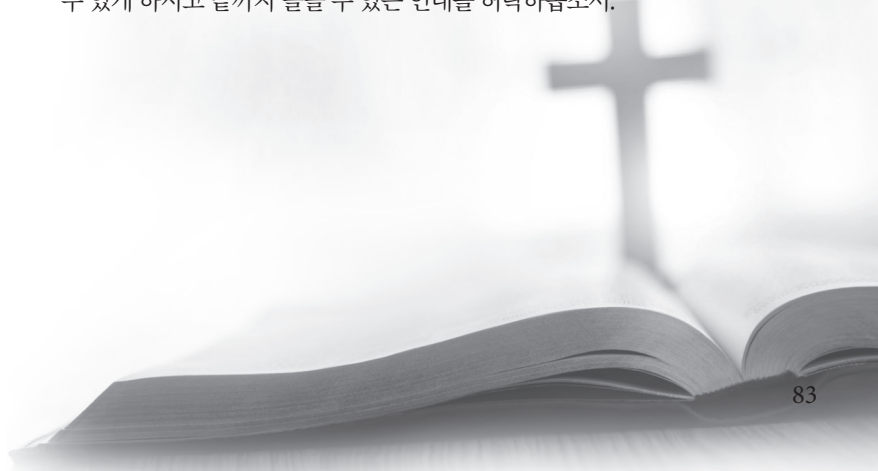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 삶 속 힘든 시기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위로의 자리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조언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12/4
금

# 필요하지 않아도

오늘의 본문 | 욥기 22장

엘리바스가 다시 욥을 책망하며 그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합니다. 그는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2장 2-3절

**[개역개정]**

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새번역]**

2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3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 한 구절 묵상

엘리바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옳은 말 위에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자기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고난에 무관심한 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은 필요하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시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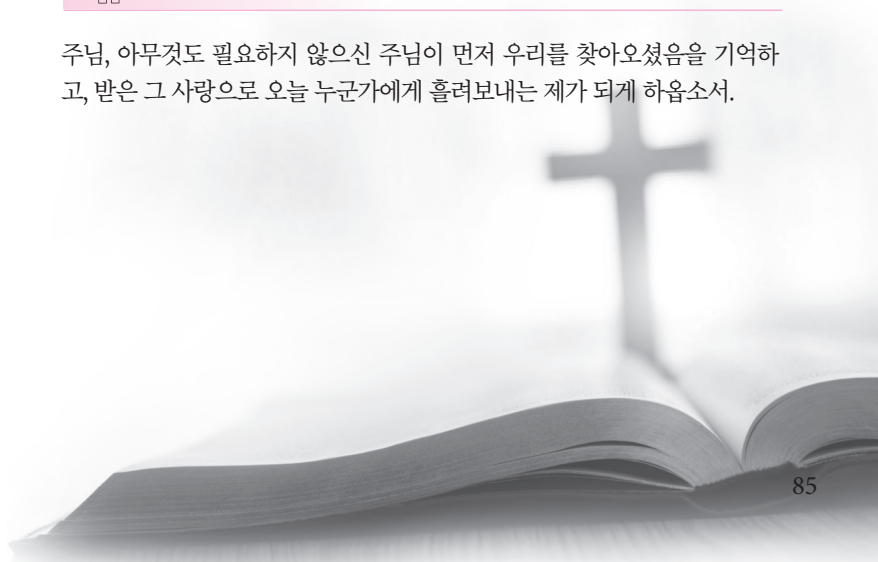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내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받은 그 사랑으로 오늘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12/5
토

#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오늘의 본문 | 욥기 23장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싶지만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3장 10절

**[개역개정]**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새번역]**

10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 한 구절 묵상

욥은 하나님을 찾지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캄캄함 속에서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심을 붙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고난이 끝난 뒤가 아니라, 여전히 어둠 속에서 먼저 드려진 신뢰였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의 걸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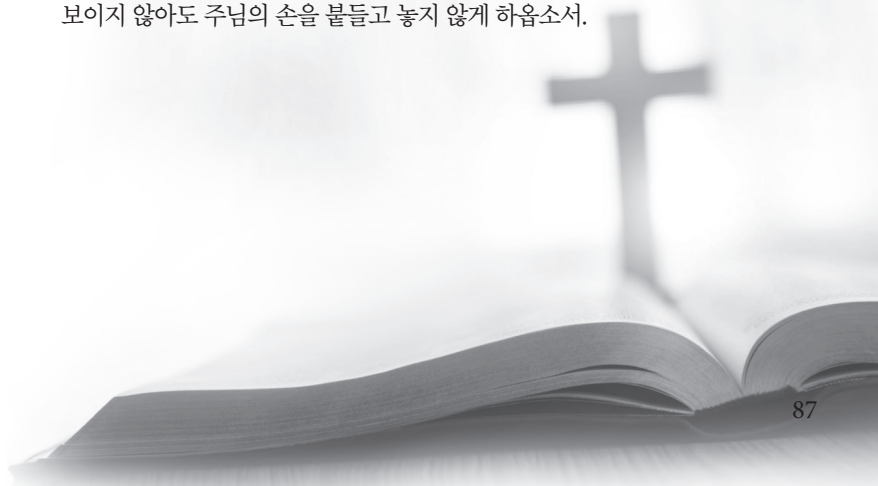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제 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12/6
주일

#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오늘의 본문 | 욥기 24장

욥은 악인이 형통하고 약자는 착취당하는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을 낱낱이 나열하며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4장 22절

**[개역개정]**

22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새번역]**

22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 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 한 구절 묵상

때로는 불의한 사람이 더 강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욥은 약한 자를 억압하면서도 평안히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들의 힘이 영원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세상의 힘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의를 당장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눈앞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 삶 속에서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부조리는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불의가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통치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12/6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 욥기 24:22-24, 새번역 ]

22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 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23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24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때로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잘되고 편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욥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욥은 곧 그들의 힘이 영원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풀처럼 시들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눈앞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이건 너무 불공평해!"라고 느꼈던 일이 있었나요?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게 해 주세요.

12/7
월

# 설명되지 않는 삶 앞에서

오늘의 본문 | 욥기 25장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강조하며 욥의 의로움을 비판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5장 2-3절

**[개역개정]**

2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새번역]**

2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 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3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 한 구절 묵상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를 끊임없이 헤아리며 삶의 자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이해 안에 가두려 할 때 더 불안해집니다. 설명되지 않는 삶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답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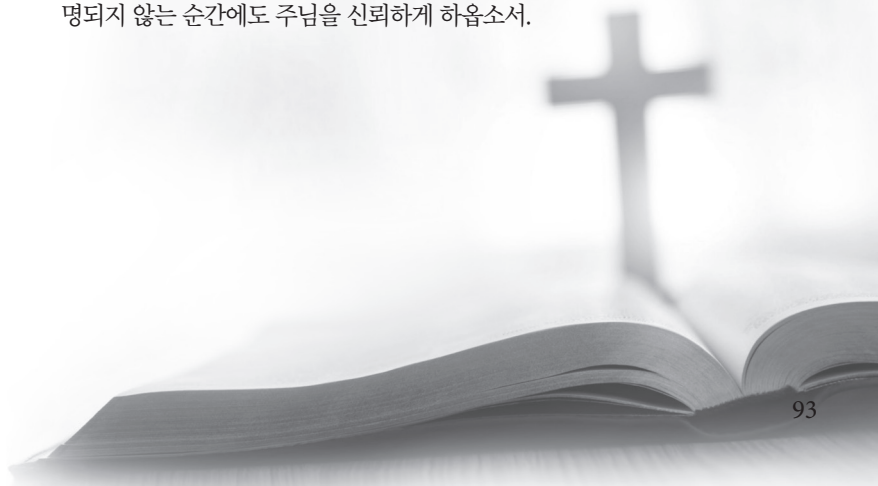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다 이해할 수 없는 삶 앞에서 스스로 답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12/8
화

# 질서라 부를 수 없는 자리에서

오늘의 본문 | 욥기 26장

욥은 빌닷의 말에 반박하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를 선포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6장 12-13절

**[개역개정]**

12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13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새번역]**

12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13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 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의 통치는 혼돈이 사라진 뒤에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라합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하늘을 맑게 하시고 날렵한 뱀을 찌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삶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혼돈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질서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라 부를 수 없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혼돈이 끝났다는 확신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지금 내 삶에서 '질서라 부를 수 없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주님, 질서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혼돈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12/9
수

# 인생 해석의 회심

오늘의 본문 | 욥기 27장

욥은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7장 11-12절

**[개역개정]**

11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새번역]**

11 날더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 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 보아라.

12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 한 구절 묵상

보아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존재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보았음에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 해석의 회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과정 중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눈앞의 현실에 갇히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저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옵소서.

12/10
목

# 지혜를 얻는 방법

오늘의 본문 | 욥기 28장

욥은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로 고백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8장 28절

**[개역개정]**

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새번역]**

28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한 한 가지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보석을 얻기 위해 바위를 뚫고 강줄기를 막아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악에서 멀리 떠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얻으려는 시도들을 내려놓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의 지혜를 의지했던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12/11 금 그리움을 넘어

오늘의 본문 | 욥기 29장

욥은 재앙이 닥치기 전,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지난날을 그리워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29장 2-3절

**[개역개정]**

2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3 그 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취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새번역]**

2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3 그 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 한 구절 묵상

욥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를 비추고 그 빛을 따라 걸었던 그때. 깊은 어둠 속에서도 걸음이 두렵지 않았던 그때. 그래서 욥의 현재는 더욱 고통스럽고 동시에 지난날이 더욱 그립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지나간 은혜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과거를 향한 그리움이 현실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가 고난의 때를 이기는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밝은 빛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과거의 그리움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난 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12/12
토

# 바라던 것과 다른 결과가 찾아올 때

오늘의 본문 | 욥기 30장

욥은 존경받던 지난날과 달리, 멸시와 고통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0장 26-27절

**[개역개정]**

26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27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새번역]**

26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바랐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27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 한 구절 묵상

오랜 시간 견디며 기다렸던 일이 나의 바람과 다른 결과로 찾아올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은 복을 바랐지만 화가 찾아왔고, 밝은 빛을 기다렸지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날을 지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우리의 바람과 다른 결과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고통의 현장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바라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의 마음을 숨김없이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의 마음을 숨김없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 12/13 주일 무의식 속에서

오늘의 본문 | 욥기 31장

욥은 계속되는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변호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1장 15절

**[개역개정]**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새번역]**

15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 한 구절 묵상

31장에서 욥은 자신이 지었다고 비난받는 죄들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특별히 종을 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을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종들을 결코 하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의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또는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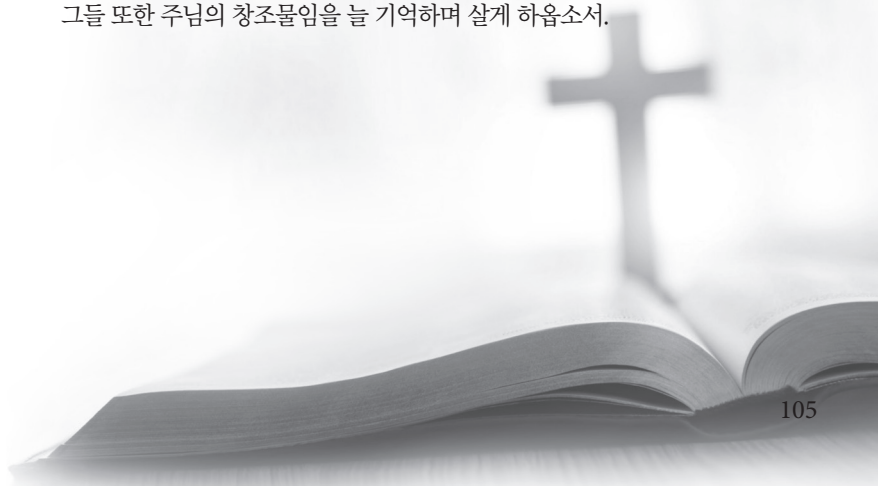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최근 아랫사람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의 말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겼던 순간이 있었는지 떠올려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낮춰보고 무시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창조물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12/13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 욥기 31:13-15, 새번역 ]

13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14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
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15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욥은 자신의 종들이 억울한 일을 말하러 올 때마다 귀 기울여 듣고 공평하게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종들도 똑같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종들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보다 어리거나 약하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말을 가볍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동생의 말, 자녀의 말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서로를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끝까지 귀 기울여 주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내 말을 끝까지 들어 주어서 고마웠던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 가족이 서로의 말을 더 잘 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주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로 보게 해 주세요.

12/14
월

# 깨달음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 | 욥기 32장

엘리후는 나이의 많고 적음에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깨달음의 원천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2장 8절

**[개역개정]**

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새번역]**

8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한 구절 묵상

엘리후는 자신이 나이가 어려 지금까지 침묵했다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자가 지혜롭다는 통념을 그도 처음엔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통념을 뒤집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연륜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 곧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나이를 지혜의 척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장자의 말이라 무게 있게, 연소한 자의 말이라 가볍게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숨결이 깨달음의 근원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최근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나의 경험과 연륜만 믿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다짐해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이와 연륜을 지혜의 척도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과 숨결로 깨닫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2/15
화

# 동등한 존재

오늘의 본문 | 욥기 33장

엘리후는 욥에게 말을 걸며, 자신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동일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3장 6절

**[개역개정]**

6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새번역]**

6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 한 구절 묵상

엘리후는 욥에게 말을 걸기 전, 먼저 자신을 낮추는 말부터 꺼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았고, 나를 살리는 것도 당신을 살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숨결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서 친구들은 욥을 정죄자의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지만, 엘리후는 자신을 욥과 나란히 세우는 데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나와 그가 동등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누군가와 마주할 때, 동등한 관계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오늘 대화를 나눌 사람 중, 위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다가가야 할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와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은 숨결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12/16
수

#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오늘의 본문 | 욥기 34장

엘리후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욥이 지혜가 없을 뿐더러 죄에 반역을 더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4장 35-36절

**[개역개정]**

35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36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새번역]**

35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 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6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 한 구절 묵상

엘리후의 주장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니 욥의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결국 세 친구와 똑같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꺼냅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통받는 욥을 향해 정죄의 칼을 겨눈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고 그 결과 자신의 악함을 깨닫길 바란다는 끔찍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엘리후가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바랐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가 깨닫기를 바라며 그의 고통을 정당화한 적은 없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인과응보의 잣대로 이웃의 삶을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12/17 목

# 얕은 정답

오늘의 본문 | 욥기 35장

엘리후는 사람의 의나 악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하나님은 헛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5장 14절

**[개역개정]**

14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뵈올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보냐

**[새번역]**

14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 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자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심플하게 답변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답변은 지나치게 단순해서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자리를 빼앗을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낳습니다. 깊은 고통을 쉬운 정답으로 해결해 버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지식을 자처하는 엘리후가 보여 주는 얕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얕은 정답은 심오한 질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다른 이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섣불리 인내를 요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12/18 금

# 속마음

오늘의 본문 | 욥기 36장

엘리후는 욥이 고난 앞에서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일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6장 3-4절

**[개역개정]**

3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4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새번역]**

3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4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 한 구절 묵상

엘리후는 자기 지혜를 다 짜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밝히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고통받는 욥의 모습은 철저히 외면 당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엘리후처럼 욥을 향해 "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너는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변호한다는 대의 아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엘리후는 어쩌면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뽐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속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신앙적인 대화나 논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내 속마음은 무엇이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저의 교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12/19
토

# 가만히 서서

오늘의 본문 | 욥기 37장

엘리후는 천둥과 번개, 눈과 비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며 마지막에 욥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권면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7장 14절

**[개역개정]**

14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새번역]**

14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 한 구절 묵상

우리는 답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면 답을 캐묻거나 나름의 논리를 세워 하나님께 따지곤 합니다. 이때 엘리후는 욥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심 앞에 멈추어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바라보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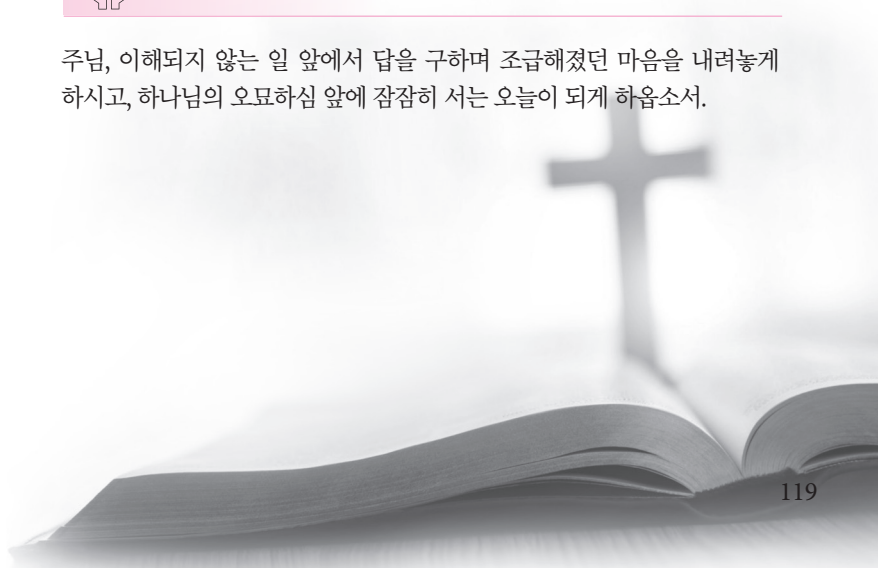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지금 내가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며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답을 구하며 조급해졌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심 앞에 잠잠히 서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12/20 주일

# 질문이 뒤집히는 순간

오늘의 본문 |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마침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신비를 하나씩 보여 주시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새롭게 마주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8장 2-3절

**[개역개정]**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새번역]**

2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3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 한 구절 묵상

욥은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상황이 뒤집힙니다.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욥은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십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믿겠다'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가 하나님보다 크게 붙들고 있는 나의 해석이나 확신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의 작음을 직면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12/20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 욥기 38:1-4, 새번역 ]

1 그 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2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3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욥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대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 알지 못해도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크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해 주세요.

12/21
월

# 내 능력이라는 착각

오늘의 본문 | 욥기 39장

하나님은 욥에게 산염소와 들나귀, 들소와 타조, 말 등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만들어 내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39장 19-20절

**[개역개정]**

19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20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엄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새번역]**

19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 준 것이 너냐?
20 네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 당당한 콧소리를 네가 만들어 주었느냐?

## 한 구절 묵상

사람은 말을 길들이고 훈련시킬 수 있지만, 그 힘의 근원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도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실력을 쌓았기에 모두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몸과 환경, 재능까지 내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앞에서,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신 분 앞에 겸손히 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룬 것이라 여기며 자랑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먼저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12/22
화

# 하나님의 세계

오늘의 본문 | 욥기 40장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욥은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응답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40장 15절

**[개역개정]**

15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새번역]**

15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 한 구절 묵상

욥은 하나님께 '왜'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베헤못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바라보는 세계를 넓히셨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나의 세계도 온전해집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오늘 나의 시선은 '나의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까?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감격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12/23
수

# 충만함의 경계

오늘의 본문 | 욥기 41장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을 묘사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41장 10-11절

**[개역개정]**

10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새번역]**

10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11 그것에게 덤벼 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듯, 하나님께도 도전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우리가 가장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삶의 경계로 삼으십니다. 내 삶에 그어주신 하나님의 한계선은 제한이 아닌 충만함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는 내가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경계가 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게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제게 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2/24
목

# 들음의 순종

오늘의 본문 | 욥기 42장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신 뒤, 욥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욥기 42장 5절

**[개역개정]**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새번역]**

5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 한 구절 묵상

욥은 한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에 오래도록 귀를 기울였기에 마침내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 앞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를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지를 들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게 들려주신 말씀 앞에 '들음의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내딛은 걸음이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시어 순종함으로 살아가신 주님처럼, 주의 음성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들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 12/25 금 힘을 잃은 자들에게 오신 평강의 왕

오늘의 본문 | 시편 29편

다윗은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산과 광야를 뒤흔드는 폭풍을 보며 그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시편 29편 11절

**[개역개정]**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새번역]**

11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 한 구절 묵상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를 살아낼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힘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자조섞인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능력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강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찬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낼 힘은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평강을 어떻게 누리고 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는 하루되게 하옵소서.

12/26
토

# 울음 다음에 오는 아침

오늘의 본문 | 시편 30편

병들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다윗이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시편 30편 5절

**[개역개정]**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번역]**

5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 한 구절 묵상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감사를 노래합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긴 밤을 지나는 사람에게 아침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해는 반드시 뜹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눈물의 시간 뒤에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지금 눈물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쁨의 아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냅시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나에게 눈물의 밤은 언제인가요? 그 밤이 지난 뒤 주실 아침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눈물의 밤 한가운데서도 기쁨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12/27 주일

# 내 앞날을 맡깁니다

오늘의 본문 | 시편 31편

사방에서 쫓기는 두려운 처지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때를 맡깁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시편 31편 14-15절

**[개역개정]**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새번역]**

14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15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 한 구절 묵상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는 두려운 자리에서 자기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앞날을 내가 쥐고 있으면 걱정이 늘 따라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으면 길이 낯설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어도 내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앞날의 걱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내가 꼭 쥐고 있는 앞날의 걱정은 무엇인가요?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적어 보세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알 수 없는 앞날을 제가 붙들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12/27
주일

# 한 구절 가정예배

##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 시편 31:14-16, 새번역 ]

14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15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6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원수에게 쫓기던 다윗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걸으면 낯선 길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이가 길을 알아서가 아니라, 아빠가 그 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걱정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❶ 한 구절 말씀 나눔

-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셨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새해에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걱정은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❷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지켜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의 모든 앞날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해 주세요.

12/28
월

# 숨길수록 무거운 것

오늘의 본문 | 시편 32편

죄를 숨기며 괴로워하던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뒤에 누리는 복을 노래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시편 32편 1절

**[개역개정]**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새번역]**

1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 한 구절 묵상

다윗은 죄를 숨기던 때를 떠올립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뼈가 쇠는 것 같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 깊숙이 숨겨둔 죄악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주님께 보여 드릴 때 죄책감과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죄는 숨길수록 무겁고 드러낼수록 가벼워집니다. 오늘 마음에 숨겨 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꺼내 놓고 용서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마음속에 오래 숨겨 둔 일이 있나요? 오늘 그 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숨기지 않고 죄를 고백하여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12/29
화

#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 시편 33편

시인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자고 노래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시편 33편 17-18절

**[개역개정]**

17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8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새번역]**

17 나라를 구하는 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 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8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굽어보시며, 그들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군대의 수나 군마의 힘으로 안전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인자하심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무엇을 먼저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과 가진 것을 먼저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12/30
수

#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 | 시편 34편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여 겨우 목숨을 건진 뒤, 자신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시편 34편 1절

**[개역개정]**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번역]**

1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 한 구절 묵상

이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겨우 목숨을 건진 뒤에 지은 노래입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며 버텨야 했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찬양은 좋은 날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지우고 싶은 날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올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나아가 어떠한 순간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12/31
목

# 미리 쓰는 감사

오늘의 본문 | 시편 35편

다윗은 억울한 모함과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 오늘의 한 구절 시편 35편 18절

**[개역개정]**

18 내가 대회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새번역]**

18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 한 구절 묵상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감사를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응답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며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❷ 올해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적어봅시다.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 한구절 묵상

평촌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순교회
Sae soon Presbyterian Church